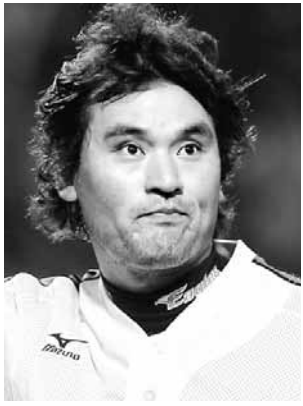


2012 말말말

“빌보드 2위를 아쉬워 하는 날이 올 줄이야” 싸이

“오빤 강남스타일” 올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듣고 또 직접 한 말이다. 싸이를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게 한 히트곡 ‘강남 스타일’의 후령구다. 이 말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, 미국

예일대가 선정한 ‘올해의 말’에서도 9위를 차지했다. 정치권에서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“국민께 할 말이 없다”는 말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.



박찬호



신아람



이정희



조경란

■ 국내 말말말

◇“살기 힘든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살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다니 제 심정도 그런데 국민 마음은 어떨겠느냐” “국민께 할 말이 없다”=이명박 대통령, 2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‘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’에서

◇“용의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색신작업을 용이라고 하면 공천 작업은 마지막 눈을 그려놓는 화룡점정”=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, 2월 2일 4·11 공천심사를 진행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

◇“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”=박근혜 대통령 당선인,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때인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

◇“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”=박근혜 대통령 당선인,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인 9월 1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

◇“5·16과 유신,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”=박근혜 대통령 당선인, 새누리당 대선후보 때인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

◇“만사올통”이라는 말을 들어봤나. 만사가 ‘형통’하다가 (이제는)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것”=김문수 경기지사, 7월 24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항희 변호사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

◇“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”=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, 11월 8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구체적 협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

◇“음식을 많이 답을 수 있는 건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”=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, 11월 12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마음을 비우고 임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면서

◇“미래는 이미 와 있다.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”=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, 9월 19일 출마선언문에서 SP자가 윌리엄 김슨의 말을 인용해

◇“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.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”=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, 12월 4일 첫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‘토론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나’고 묻자

◇“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”=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,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인민군 열병식에서

◇“아근은 축복이다”=김중수 한국은행 총재, 9월 14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젊어서 일 습관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음

◇“유럽위기 대응책 이후 최대 충격”=김석동 금융위원장, 6월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

◇“우리 커피켓 아니다. 최근 우리가 디자인상도 받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다”=신종균 삼성전자 사장, 5월 20일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를



가수 싸이가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념공연에서 ‘강남 스타일’을 열창하며 말춤을 추고 있다.

“5·16과 유신은 헌법가치 훼손” 박근혜
“나는 한국야구 최고의 행운아” 박찬호

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

◇“저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습니다. 마지막 액땜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겠습니다”=정두언 새누리당 의원, 7월 6일 새벽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14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MB 정부 실세들에 대한 심심함을 표시하며

◇“그럼 너희도 나가라”=한상재 전 검찰총장, 11월 29일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 내분 사태를 맞아 대검 차장과 부장들이 책임을 지고 옹퇴할 것을 요구하자

◇“어미의 심정으로 판결합니다”=서울고법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인 조경란 부장판사, 9월 6일 좋은 성적을 내라는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3년6월, 단기 3년을 선고하며

◇“늬우면 죽어야 해요”=서울동부지법 유승관 부장판사, 10월 22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66세의 여성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바꾸면서 불명확하게 얘기하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혼잣말

◇“증거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증거를 내놓으라니 무슨 말인가.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못할 것”=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, 8월 29일 1037번째 수요집회에서 ‘강제연행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’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

의 발언을 반박하며

◇“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”=박원순 서울시장, 12월 13일 발간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비판 백서 발간사에서 백서 발간을 통해 전이행정을 통한 예산낭비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

◇“빌보드 2위를 아쉬워하는 날이 올 줄이야”=싸이, 10월 18일 빌보드 싱클 차트에서 4주 연속 2위를 차지한 뒤 미투데이에 남긴 글

◇“고래~?”=KBS 2TV ‘개그콘서트’ 코너 ‘비상대책위원회’에서 군 당국자로 분한 개그맨 김준현이 무안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말

◇“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”=방송인 강호동, 10월 29일 SBS TV ‘스타킹’ 첫 녹화를 앞두고 1년 만의 방송 복귀 소감을 밝히며

◇“내 몸이 깃털처럼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”=체조선수 양학선, 8월 7일 런던 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에서 우승해 한국 체조에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후 경기순간을 회상하며

◇“시간이 그렇게 안 갈지 몰랐어요”=펜싱선수 신아람, 8월 31일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결승에서 마지막 1초가 흐르지 않아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의 공격을 3번 막아내고 4번째 공격을 허용해 패한 후

◇“나는 한국야구 최고의 행운아”=프로야구 선수 박찬호, 11월 30일 은퇴 기자회견에서 /연합뉴스

■ 지구촌 말말말

◇“게이가 되느니 독재자인 편이 낫지”=유럽의 마지막 독재자’라 불리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, 3월 4일 독일 외무장관의 동상에 성향을 비아냥거리며

◇“그동안 상대한 총리만 해도 12명에 이른다”=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, 3월 21일 즉위 60주년 기념 의회 연설에서 국가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을 강조하면서

◇“모든 원전의 가동 중단은 일본의 집단자살”=일본 센고쿠 요시모 전 관방장관, 4월 16일 원전 가동 중단과 관련해

◇“지난해 이맘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람에 대해 정의를 구현했다”=버락 오바마 대통령, 4월 28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만찬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성공을 언급하며

◇“47%의 미국인이 세금도 안 내고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”=미 폼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, 5월 17일 공화당 지지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한 말

◇“가난한 시대에 매춘은 이익 나는 장사였고 위안부가 장사를 선택한 것”=일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, 8월 24일 기자회견에서

◇“이 자리는 주인이 있다”=버락 오바마



반기문

버락 오바마 “이 자리는 주인이 있다”

반기문 “방 안서 노크 무시하면 안돼”

오바마 재선 캠프, 8월 31일 유령 감독·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오바마 대통령을 투명인간으로 회화화한 연설에 대한 반격으로 오바마가 ‘대통령’ 명칭이 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며 불인 설명



오바마

◇“꺼져, 부자 명칭이”=프랑스의 좌파 성향 유력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9월 10자 1면 제목. 소득세 인상을 피해 벨기에로 국적 변경을 신청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에네시(LVMH) 회장에 대해

◇“누군가가 용건이 있어서 내 방문을 두드렸다고 치자. 방안에 앉아 있으면서 노크 소리를 무시하면 되겠는가”=반기문 유엔 사무총장, 미국 언론인 톰 플래이트와 대담에서 24시간 전화를 받는다고 소개하며

◇“당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려면 때로는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와 볼 필요가 있다”=39km 상공 스카이 다이빙에 성공한 오스트리아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너, 10월 14일 낙하 직전 코멘트

◇“커피향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”=영국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인 리처드 베이컨, 11월 12일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급

◇“낙후되면 얻어맞고 발전을 해야만 스스로 강해진다”=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, 11월 30일 전국 생중계 연설에서 /연합뉴스

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·제2006-1

극락전 남골당

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?

모든 아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

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!!

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

-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함께 화진 묘, 때가 벗겨진 묘,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,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익 및 친족,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%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.
-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.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붕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이보다 더욱 빈 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부리와 벌레, 습기의 집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
-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.

- 문민정사

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

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) 228-0108, 010-5103-4004, 010-7179-0108

Canon

EOS 6D

「세계 최경량* 풀-프레임」

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(캐논출판) 문의전화 062)383-3000